

'김환태 문학과 무주 문학의 길' 조명

무주군·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김종희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초청 강연·시화전 열어

무주군과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가 6월을 맞아 특별한 문화행사 및 강연회를 열어 군민들의 문화 감성을 해소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과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는 지난 26일 김환태문학관 2층 다목적영상관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회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회를 마련했다.

이날 강연회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김종희(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교수가 강사로 나서 '김환태 문학과 무주 문학의 길' 주제로 수준 높은 김환태 평론가의 문학과 비평을 조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종희 교수는 "1909년 11월 무주에서 태어나 1944년 5월, 향년 34세로 영면한 김환태 평론가는 선각적 지식과 균형성 있는 문학관으로 당대 문학을 조명한 비평가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우리 문학에 새로운 비평 및 분석의 틀을 가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장점을 갖고 있다"라며 "6년간 문필활동 기간에 평론 40편, 수필 24편, 평론 번역 및 번안소설 3편을 남겼다"고 전했다.

김환태 평론가는 서구적 합리성에 근거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려 애썼으며, 작품 자체의 미적 가치를 존중하여 드러내는 데 주력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회장 전선자)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김환태 문학관 2층 로비에서 회원 20여명이 정성 들여 발표한 작품에 대한 '시화전'(40여점)을 열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연희 시인의 '망동어', 이병수 시인 '민들레꽃씨', 송중엽 시인 '초가을' 등 주옥같은

시(詩)가 전시돼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감동과 정서적인 위안과 안정을 줬다는 평가다.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는 지난 2008년부터 무주출신이자 한국 비평문학의 선구자인 김환태 평론가의 문학을 기리고, 무주문학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늘인 김환태 문학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평론문학상 시상도 예정돼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에 빠진 군민들에게 작품과 강연을 통해 정신적 안정감을 줬다"며 "무주군과 기념사업회가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문학과 예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살스런 탈놀이 · 판소리 허다한 판소리 만남

군산예술의전당,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7월 10일 공연

'The 광대' 작품으로 버나놀이 · 재담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며 볼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 군산예술의전당에서 시원한 웃음을 선보일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공연이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은 짧은 연희집단 'The 광대'의 작품으로 익살스런 탈놀이와 판소리가 허다한 판소리의 만남이 새롭다는 평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버나놀이, 재담 등 다양한 볼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와 탈놀이를 한 무대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판소리 다섯마당을 판소리가 아닌, 판소리로 설정하고 그저 밋밋한 만사 오케이(OK)인 거지들의 시선을 통해 '이 세상 별 것 아니다'라는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빈곤과 공허함에 허덕이는 우리네 삶을 해학적이고 유쾌한 탈놀음으로 시원하게 위로하고자 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종자와 위트가 넘쳐나는 이번 작품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이 힐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가지길 바라며 또한 공연 중 마스크 착용하기, 공연장 내 거리 유지하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을 지켜 안전한 공연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공연장 방역과 객석 간 거리두기를 진행하고 티켓금액은 전석 1만원으로 티켓링크 및 커피브라운에서 예약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광대 탈놀이 '판소리 판' 공연이 오는 7월 10일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아몬드' 작가 손원평, 첫 소설집 '타인의 집' 출간

2017년 데뷔작 '아몬드'로 화제가 됐던 작가 손원평이 첫 소설집 '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작품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의 작품부터 2021년 봄에 발표한 최신작까지, 작가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며 가장 먼저 천착한 고민들이 오롯이 담겼다.

전셋집의 불법 월세 세어하우스를 배경으로 부동산 계급 구조를 짚어낸 촌극으로 풀어낸 표제작 '타인의 집'을 비롯해 근미래의 노인 수용시설 속 할머니와 이주민 '복지 파트너'의 불편하고도 아이슬한 우정을 다룬 SF '하리 아드네 정원', '아몬드' 외전 격인 소설 '상자 속의 남자' 등 여덟편을 만날 수 있다.

작가는 "문학의 행위가 타인의 집을 평가하지 않고 들여다보는 행위라면 책의 구성은 분명하다. 책은 우리를 대중에서 시민으로, 관중에서 독자로 이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이 책은 부끄럽게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해낼 만한 대단한 책은 아니다"며 "그러나 이 책의 제목이 제시하는 바를 독자들이 가끔이라도 가슴에 품어준다면 나로서는 뿌듯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날치, 신드롬 '범 내려온다' NFT로 발매

29일 디지털 자산 오픈마켓 플랫폼 'NFT 매니아' 통해 공개

얼터너티브 팝 밴드 '이날치'가 신드롬을 일으킨 곡 '범 내려온다'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로 발매한다. 지난 25일 디지털 자산 오픈마켓 플랫폼 'NFT 매니아'에 따르면, 이날치는 오는 29일 이 플랫폼을 통해 '범 내려온다' NFT 음원을 공개한다.

이날치는 2019년 결성됐다. 판소리를 대중음악으로 재해석한다. 이날치라는 이름은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 이경숙의 별명을 차용했다. 타밴드들과 달리 보통의 화성악기 대신 리듬위주의 타악기 활용을 극대화한다. 특히 '범 내려온다'는 앰비규어스댄스 컴퍼니와 협업한 네이버 온스테이지 영상이 크게 인기를 누리면서 '1일범' 신드롬을 일으켰다.

익숙한 것에서 새모음을 뽑아내는 이날치는 이번 NFT 음원과 관련 "진짜 디지털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관심과 공감함. 획기적이라는 생각에 발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NFT는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에서



소유권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림, 영상, 음악과 같은 디지털 파일에 고유의 식별 정보를 부여하는 일종의 신종 디지털 자산이다.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영구 보존이 가능한 디지털 인증서다.

/뉴시스



전주문화재단, 노동조합 '이팝프렌즈' 회비 10% 기부 약속

(재)전주문화재단과 민주노총 전주문화재단 지회는 노동조합원 회비 1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최근 전주 문화예술을 후원하기 위해 발족한 '이팝프렌즈'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후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서다.

재단 노동조합은 '이팝프렌즈' 발족 이후 직원들에게 기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부문화

확산·조성을 위해 조합비의 10%를 매월 기부해 지역의 문화예술 후원에 나서기로 했다.

백옥선 대표이사와 김창주 지회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협력 등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기부를 통해 예술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